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윤석열 캠프 메시지팀 불법촬영 혐의 관련 공동 기자회견

■ 박지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

저는 얼마 전까지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활동가이자 기자인 ‘추적단 불꽃’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끔찍함을 두 눈으로 매일같이 지켜봐왔습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진의원 비서관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서관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람이 ‘여가부 폐지’ 한줄 공약을 담당한 메시지팀이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자가 불법촬영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한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추적단불꽃으로 활동하며 봐온 불법촬영물만 수천, 수만 개에 이릅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수많은 피해자들을 보며 괴로웠고, 한편으로 나도 어디서 찍히지 않았을까,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불안한 여성들의 심정을 과연 조금이라도 이해할까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남성과 여성을 편 가르며 젠더 갈등을 부추겨왔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거침없이 발언하고, “여가부 없으면 저흰 죽었다”는 이용수 선생님의 간곡한 말씀에 이준석 당대표는 “여가부 폐지가 핵심

공약”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답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성안전·성평등 공약 질문엔 ‘답변거부’로 일관하고, 공약 보도자료에 마저 “오포케”라는 여성혐오 표현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남녀 모두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 성평등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권지웅 공동선대위원장

[불법촬영 혐의자와 함께하는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에 묻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메시지팀 구성원이자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인 A씨가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한 호텔에서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특히 2030을 대상으로하는 메시지를 주로 작성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촬영 혐의자가 공당의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재직한 것도 놀라운데 유력 야당 대통령 후보자의 메시지를 냈다니 참담한 심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간 수차례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이번주 만해도 공약 자료집에 대표적 여성혐오 밈인 ‘오포케’가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10대 공약으로 들어간 ‘여가부폐지’ 공약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불법촬영 범죄로 입건된 숫자가 5,151명입니다. 2015년 이래 평균 5,000명에 달하는 불법촬영 가해자가 입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한 해 5,000명이 넘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여성과 청년의 공약을 만들고 메시지를 쓰고 있었다면 그만큼 여성과 청년에게 위험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메시지팀 구성원이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사죄하기 바랍니다.

[신남성연대, 국민의힘의 ‘홍위병’ 아닙니까?]

지난 12일 신남성연대가 종로에서 ‘후보 통화 녹취록’을 공개 재생하였습니다. (<https://youtu.be/0aUo8sLePiI>) 녹취본이 편집본이라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신남성연대는 어제 오후 열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7개 단체가 연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정치를 부수자’에 1인트럭시위 형태의 맞불집회를 열어 이 영상을 공개 재생하였습니다.

신남성연대는 지난 10일에도 ‘언론정화팀’이라는 이른바 댓글부대팀을 운영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주요 문제 행위는 신남성연대 회원들로 하여금 선거 기사 등에 댓글을 달도록 했으며, 그 댓글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추천·반대를 조직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신남성연대와의 ‘댓글 조작’에 대해 어떤 해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님, 크라켄 운운하더니 비단 주머니가 댓글 조작이었습니까.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할 대통령선거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과의 연관성 또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2022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첨부]

박지현 중앙선대위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근절특위 위원장과 다이너마이트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